"악마의 덫… 인생의 뒷모습 망쳤다"

■ 임상규 총장이 남긴 유서 내용과 자살 이유

'함바' 유상봉에 2천만원·동생 1억5천만원 빌려 조사

부산저축은행 5천만원 만기 전 인출 정보 유출 의혹

13일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목숨을 끊은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을 토대로 임 총장이 검찰 조사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과 주변인들은 추정하고 있다.

임 총장은 A4 용지 1매 분량의 유서에서 "안타깝고 슬프다. 인생의 마지막 뒷모습을 망쳤다"며 "악마의 덫에 걸려 빠져나가기 힘들 듯하다"고 밝혀 마음고생이 극심했음을 내비쳤다.

임 총장은 또 "더 이상의 수치를 감당할 수 없다. 모두 내가 소중하게 여겨온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잘못된 만남과 단순한 만남 주선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그는 "얄팍한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키고, 대학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떠난다"고 유서를 통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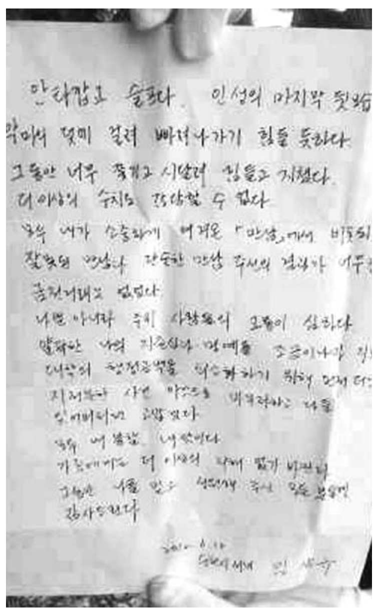
앞서 임 총장은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3일 출국금지 조치됐다.

임 총장은 지난해 경북지역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유씨에게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유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검찰은 건설업자인 임 총장의 동생 계좌로 지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 가량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임 총장은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연루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청탁 대가는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사돈관계인 임 총장은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만기를 9개월 가량 남겨두고 본인 명의 예금 5000만원을 인출해 영업정지 전 사전정보를 건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3일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현장 식당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총장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유가족들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13일 오전 8시10분께 순천시 서면 동산리 선산 인근에서 발견된 임총장의 소나타 승용차 내부. 오른쪽 앞자리에 숯을 피운 화로가 놓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임상규는 누구

기획예산처 예산실장·농림장관 역임

마당발 인맥… 재임시 호남 배려 각별

임상규 순천대 총장은 예산과 농림분야에 정통한 행정 전문가였다.

평소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편이었지만, 중요 사안은 사무관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 '임한샘'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으로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경제관료로는 드물게 이공계(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인 그는 1975년 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등 예산부처에서 근무했다.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인 제56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퇴임 후 고향인 순천대 생명산업과학대 웰빙자원학과 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7월 이 대학 총장으로 취임했다.

국무조정실장 시절에는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 등에 주도적으로 나섰고, 전남지역 농업관련 예산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양한 중앙부처 경력에 따라 '마당발' 인맥을 형성했다.

■ 충격 휩싸인 순천대· 지역 주민들

장관 출신 총장 획기적 발전 기대했는데…

13일 오전 이른시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임 총장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순천대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순천대는 임 총장의 사망과 관련, 이날 오후 5시께 장상수 교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학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임 총장은 지난해 7월 제6대 순천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석이 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뜻밖의 비보에 온종일 침통한 분위기에서 임 총장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특히 취임 이후 약학대학과 간호학과 신설을 계기로 차별화된 약학시장 메카 조성과 IT기반 첨단농업센터 착공 등 대학역량강화와 학생 취업문제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임 총장을 되새기며 아쉬워했다. 순천대는 대책 논의와 함께 교내 70주년 기념관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조문행렬이 계속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음주후 불법 주차 추돌사고 사망 초래한 40대 구속영장

자동차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추돌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뒤 그대로 달아난 40대 불법 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송모(여·30)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46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빛고을로 편도 4차선 중 4차선에서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4차선에 불법주차된 김모(46)씨의 갤로퍼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송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김씨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1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박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47%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사망사고 유발(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적용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교통사고 가해자는 아니어서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안전지대에 긴급하게 차를 세워야 할 때는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해 추돌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허위 입원 보험사기 병원장 등 적발

북부경찰, 118명 입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입원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뒤 진료비를 타낸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3일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 A씨와 원무과장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챙긴 C씨 등 환자 1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벼운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환자들을 입원하게 하고 허위로 약물·주사치료를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환자들은 원무과장 B씨와의 상담을 통해 허위 입원한 뒤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정형외과에 아예 입원하지 않거나 하루만 입원한 뒤 수일 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경찰은 이 정형외과가 보험사기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지 5500여부를 분석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유사, 주유소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책임 없다"

"GS칼텍스 70억 부과 잘못"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주유소가 면세유를 대량으로 부정유통했다 해도 기름을 제공한 정유사에는 관리책임이 없어 유통 물량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3일 GS칼텍스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GS칼텍스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부과 취소된 세금은 교통세 약 63억원, 교육세 7억9000여만원, 특별소비세 3300여만원 등 무려 70억여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업에만 공급확인서의 위·변조를 검증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 1000개의 농협에서 발급한 12만건의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받아 이 중 일부가 위·변조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GS칼텍스는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8335)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내사

광주지검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 등을 기소한데 이어 또 다른 교사와 공무원을 추가로 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일부 학교에 정치자금법 피내사자인 교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라위해 기도했으니…" 7조 황당 소송

쌍나팔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자가 국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무려 7조원대의 민사소송을 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에 사는 A(여·41)씨는 지난해 5월 이 법원 제2민사부에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7억7000만원대의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

○…A씨는 지난해에도 국가를 상대로 109억80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각하됐고, 엄청난 액수의 소송 인지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인지대를 보전해 주는 소송구조까지 냈으나 이 소송구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 업 용 지 / 주차장용지 / 이주자택지 / 협의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소태동 잡종지매매
● 동구 소태동 대아아파트 부근 .잡종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 남구 대지동(대촌부근).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자연녹지
●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앞 전.2,590㎡(783평). 3,3㎡당 98만원.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4m.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자연녹지. 현재 임야.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억원 월세1천3백만원 매매가 20억원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운천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8억5천만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대지.전.답.임야
☆.광송간 대로변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마륵동 답3,000㎡ 매매가 7억원
☆.벽진동 답5,600㎡ 매매가 11억원
☆.금호동 답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오치동 대지506㎡ 매매가 4억6천만원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압촌동 정착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3천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답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답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 매매가 : 4억5천만원

♣.주유소매매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다량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도곡온천 무인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 쌍촌동 상가 · 목욕탕 · 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7천
• 금남로 3가 대로면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8천 회사사옥. 병원-의원 가능 가격은 협의 바람
• 금남로 창업금고접 대로변 땅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잘됨 공시지가 13억 투자가치 좋음 18억
• 충장로 5가 수퍼건물 대지27 공시지가 1억9천2백 매도 1억8천
•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감정15억4천 임대된곳은 전세5천만원 월5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9억3천
• 유촌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접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원룸.다가구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급매8억3천
• 대인동 계림시장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 대인동 버스도로식당 대지63㎡ 공시지가에 매도 1억3400

■매도·교환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음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
• 사찰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댐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